

“영농부산물 이제는 소각 대신 파쇄하세요”

영광군, 소형 목재 파쇄기 13대 임대 사업 추진 도로변 가로수 소각금지 안내판 100개 설치도

영광군은 본격적인 봄 농사철을 맞이하여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영광군은 산불 발생의 주범인 영농부산물의 소각을 근절하고 농업기술센터와 협업체하여 영농부산물 파쇄기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농부산물 소각에 적합한 소형 목재

파쇄기는 총 13대로 농업기술센터 12대, 산림공원과 1대를 보유하여 지원하고 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산불조심기간이 지나면 파쇄기로 가로수나 공원의 나무 가지치기 산물로 처리하는 등 파쇄기를 연중 운용한다. 또한,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해 소중한 가로수가 불에 타고 산불까지

이어지므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주요 도로변 가로수 밑에 소각 금지 안내판 100개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총 52명으로 군에 3개소 10명, 읍·면에 42명을 배치하여 차량 가두 방송을 통한 계도 활동과 산불 취약지 순찰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소형 목재 파쇄기 운용을 통해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예방은 물론 파쇄한 부산물은 퇴비로 재활용되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농민들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활동



참여를 당부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영암군, 쌀 산업 발전 위한 비전 제시한다

영암군은 지난 19일 군청 남산실에서 박종필 부군수 주재로, 군의원, 농협중앙회영암군지부장, 지역농협장, 영암쌀 관련 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쌀 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영암쌀 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생산·가공·유통 등의 분야에 걸쳐 영암 쌀산업 현황 및 현재 문제점을 진단하고 쌀소비 위축 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고품질 영암쌀이 소비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에 목적이 있다. 군은 지난 11월 연구용역 착수를 시작해 5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영암쌀 산업 발전방안 수립을 추진 중이다.

이날 보고회는 과업지시에 따른 그간의 용역추진 경과보고 및 관련 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방향을 잡기 위해 마련됐다. 영암군은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뿐 아니라 타지역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쌀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종보고회를 5월 중 개최할 계획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목포시, 마을공동체 활동 활성화 위해 지혜 모아

활동지원사업 선정 22개 단체와 간담회·회계교육 실시



목포시가 지난 19일 목포시청에서 ‘2021년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회계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사업에 선정된 공동체는 22개로 ▲낭만열차1953, 전사랑 나눔봉사

단 등 씨앗단체 19개 단체 ▲행복주택 주민복지협의체, 목원동사람들, 목화 이야기 등 새싹단체 3개 단체이며 총 1억1,108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다. 시는 간담회를 통해 사업 성과와 지

원 계획을 설명하고, 공동체 운영 및 회계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주민이 참여 하는 자립형 마을공동체를 만들어나 가는 데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마을공동체 활동은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즐거움을 찾고 더욱 활기가 넘치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많은 마을이 씨앗에서 새싹을 틔우고, 열매까지 수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민자치회를 실현하고, 점차 퇴색되는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마을 소규모축제, 마을공방, 마을 노인 반찬 봉사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목포=박정수 기자



신안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나는야 꼬마 영양사·위생사” 진행

신안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등록 급식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나는야 꼬마 영양사·위생사”특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등록 급식소 17개소 중 인원과 연령 등을 고려해 4개소의 어린이집을 선정하였으며,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총 33명의 꼬마 영양사·위생사를 선발하여 어린이들의 영양과 위생에 대한 이해 증진과 책임감 향상에 목적이 있다. 꼬마 영양사로 선발된 어린이는 식사 및 간식을 준비하고 배식하며 정리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꼬마 위생사로 선발된 어린이는 시설 내 어린이들

이 손 씻기, 이 닦기, 마스크 착용 등의 위생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 신안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들이 꼬마 영양사·위생사 역할을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영양 및 위생 정보를 교육하고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넣어 제작한 교육 자료를 함께 배부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역 내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어린이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지원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덕주 기자

무안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시행

무안군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본격 착수하여 오는 10월까지 일요일, 삼향읍 일대 379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36억 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주택, 공공, 상업건물 등의 대상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설치비의 85%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여 주민 자부담 비율을 최소화했다. 사업규모는 태양광 1795kW, 태양열 120㎡로 연간 전력생산량은 2,633MW이며 에너지 비용 절감액은 연간 3억 원에 달한다. 일반 주택에 3k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월 사용량 350kWh 기준 전기요금에 약 5만 4000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안=이기성 기자

함평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오는 31일까지 중점 조사

함평군은 오는 31일까지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일제단속 계획에 맞춰 함평사랑상품권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평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 확대와 10% 할인 판매가 지속되면서 부

정유통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군은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된 부정유통 의심 자료를 토대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

인 명의로 상품권을 지속 구매한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한다. 부정유통 사실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 유통 수급액 환수,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법규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함평사랑상품권의 운영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